



폭등과 폭락 사이, 한국 증시는 무엇에 흔들리는가?

- AI 반도체·환율·정부정책·레버리지와 기독교인의 자산관리 -

작성자: 이윤석 박사

발행일: 2026년 8월 15일

발행처: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이 리포트는 한국 교회 목회자와 진지한 기독교인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리포트는 고유 방법론 SIEW Framework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자료 탐색·정리와 초안 작성 과정에서 AI 보조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모든 주요 사실과 논거는 연구진의 검토·수정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내용과 판단에 대한 책임은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에 있습니다.

이 리포트의 저작권은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에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리포트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Executive Summary)

□ 이슈 한 줄 정의

- AI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코스피가 급등했으나 이후 환율, 외국인 자금, 정부정책, 국민연금, 레버리지, 지정학적 위험이 맞물리며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개인투자자의 손실과 정보 비대칭, 정책과 시장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상황 요약

- 코스피는 '5,000' 공약 이후 2026년 9,000선까지 상승했다가 크게 하락했으며, AI·HBM 호황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가 상승을 주도했음
- 8월 12일까지 코스피 사이드카가 매수 23회, 매도 24회 등 47회 발동, 2008년 금융위기 때 연간 26회를 초과하는 기록적인 변동성이 나타났음
- 원/달러 환율은 6월 1,500원대를 넘었다가 최근 1,400원대로 하락했으나, 외국인 자금·한미 통상·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음
-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신용투자 증가가 맞물리면서 시장급락 시 개인투자자의 손실도 크게 확대됐음

□ 핵심 문제

1.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과 현재 주가의 적정 수준은 구별해야 함
2. 주가지수뿐 아니라 환율·외국인 자금·시장 변동성을 함께 보아야 함
3.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보다 정보와 위험관리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함
4. 정부정책과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이 정치적 목적이거나 단기적인 시장안정보다 장기적인 시장신뢰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했는지 검증해야 함
5. 레버리지·FOMO·빚투는 개인 손실과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음

□ 결론

- 이번 폭등과 폭락은 AI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반 위에 환율·외국인 자금·정부정책·국민연금·레버리지·투자심리·지정학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기록적 시장 변동성은 높은 주가지수가 곧 건강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선거 전 증시부양 기대도 지속적 투자근거가 아님을 보여줌
- 개인투자자는 기관과의 단기 정보경쟁을 피하고 장기·분산·저레버리지 투자와 위험관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함
- 기독교인은 탐욕과 불안을 다스리며 재산을 청지기 정신으로 관리해야 함

문의처: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사무국 (홈페이지: www.siew.or.kr)

- 전화: 010-4682-0191 / 카카오톡 ID: siewsiew / 페이스북 그룹: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 이메일: siewsince2021@naver.com / 후원: 농협 355-0077-2712-43 예금주: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 S - Scan |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

✓ 핵심 질문:

“한국 증시는 무엇에 힘입어 9,000선까지 올랐으며, 무엇에 흔들리며 급격히 하락했는가?”

[1] ‘코스피 5,000’ 공약을 넘어 실제 코스피가 9,000선까지 상승했음

-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대선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권 강화 등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음
- 코스피는 2026년 1월 5,000선을 돌파한 뒤 6월 18일 9,063.84까지 상승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음
- 그러나 이후 반도체주 차익 실현과 글로벌 위험 회피가 겹치면서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여 급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음

[2]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상승에는 강한 실적 근거가 있었음

-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서버용 DRAM 수요 증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6년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했음
- HBM4를 비롯한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높은 시장 지위와 수익성이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되었음
- 따라서 이번 반도체 랠리를 단순한 ‘근거 없는 거품’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산업 펀더멘털의 개선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3]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는 같은 개념이 아님

-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주가가 그보다 빠르게 상승하면 앞으로 발생할 성장까지 현재 가격에 선(先)반영될 수 있음
- 시장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실제 반도체 기업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음
- 따라서 “AI 산업은 성장한다”는 판단과 “현재 가격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수익

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함

[4] 사이드카 47회는 시장 변동성이 과거와 현저히 달라졌음을 보여줌

- 2026년 8월 12일까지 코스피에서는 매수 사이드카 23회, 매도 사이드카 24회 등 모두 47회의 사이드카가 발동됐음
-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간 26회를 크게 넘어선 기록으로, 폭락만이 아니라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2026년 증시는 단순한 강세장이 아니라 수익 가능성과 가격위험이 동시에 크게 높아진 고변동성 시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5] 코스피 급등기에는 원화가 매우 약했으나 최근에는 1,400원대로 상당폭 회복됐음

- 코스피가 9000선을 넘어선 6월 18일에도 원/달러 환율은 1,527원 수준이었으며, 6월 중에는 한때 1,560원을 넘어서는 극심한 원화 약세가 나타났음
- 그러나 이후 외환수급 개선, 외환당국의 시장안정 조치, 한국은행 금리인상, 한·미·일 외환정책 공조 기대와 달러 강세 완화 등이 겹치면서 7~8월에는 환율이 1,400원대로 상당폭 하락했음
- 이처럼 불과 몇 달 사이 환율이 100원 이상 움직였다는 사실은 주식뿐 아니라 원화 자체의 변동성도 매우 컸음을 보여주며, 한국 자산을 평가할 때 주가지수와 환율을 함께 보아야 함

[6] 외국인 매도와 해외주식 투자가 원화 약세와 연결되고 있음

- 외국인이 한국주식을 매도하여 자금을 해외로 이동하면 원화매도·외화매수 수요가 발생해 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국내 투자자의 미국주식 등 해외증권 투자가 확대될 때에도 달러 수요가 증가하며, 원화 약세가 다시 달러자산 선호를 강화하는 순환이 나타날 수 있음
- 환율은 미국 금리·달러 강세·무역수지·유가·지정학적 위험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주식시장과 환율을 하나의 자금흐름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7]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도 한국 증시와 원화의 위험요인임

- 미국은 2026년 1월 한미 무역합의 이행 지연을 문제 삼아 자동차·의약품 등 일부 한국산 상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높이겠다고 압박했음
- 7월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시행하면서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이어졌음
-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한국 대표기업들이 미국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미 통상·외교관계의 불확실성은 기업실적·외국인 수급·환율·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시장위험임

[8] 미국-이란 전쟁은 유가·환율·외국인 자금을 통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음

- 2026년 초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에 큰 차질을 초래하면서 국제유가와 세계 금융시장의 새로운 불안요인이 되었으며, 8월 현재에도 평화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음
-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국제유가 상승이 수입물가·무역수지·물가와 원화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외국인 자금과 증시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므로 중동전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음
- 실제로 3월에는 이란 전쟁 우려로 한국 증시가 하루 12% 급락하고 원화가 17년 만의 저점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시장이 회복됐음에도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은 유가·환율·외국인 위험회피를 통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다시 높일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음

[9] 증시가 흔들리자 개인의 돈은 다시 해외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

- 국내 증시가 급등할 때는 해외로 나갔던 개인 자금의 국내 복귀가 기대됐지만, 급락 이후에는 다시 미국주식 매수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음
- 동시에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할 때 개인이 이를 저가매수 기회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상황도 반복됐음
- 이는 한국의 ‘머니 무브’가 단순히 주식과 부동산 사이가 아니라 기관과 개인, 국내와 해외, 원화와 달러 사이의 복합적인 자금 이동이라는 점을 보여줌

[10] 개인투자자는 정보뿐 아니라 위험관리에서도 구조적인 열위에 있음

- 기관과 외국계 투자자는 전문 애널리스트·기업 IR·실시간 정보단말·글로벌 공급망 자료·파생상품과 알고리즘 등 개인이 갖기 어려운 분석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 개인은 대부분 언론·증권사 앱·공개 리서치를 통해 정보를 얻기 때문에 같은 공개 정보라도 기관보다 늦게 발견하거나 충분히 해석하기 전에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음
- 여기에 신용과 레버리지(leverage, 차입 또는 파생상품 등을 이용해 투자금보다 더 큰 투자효과를 내는 방식)까지 사용하면 정보의 열위가 자금관리의 열위와 결합하면서 작은 판단 착오도 큰 손실로 확대될 수 있음

[11] 개인의 신용·레버리지 투자도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음

- 2026년 6월 말 국내 주식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6.7조원으로 2016년 말 6.7조원의 5.5배까지 증가했음
- ±2배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Exchange-Traded Fund)의 순자산 역시 39.4조원으로 증가했으며 미수거래와 CFD(차액결제거래, Contract for Difference)도 빠르게 늘어나 개인의 시장위험 노출이 커지고 있음
- 주가가 급락할 경우 이러한 차입투자는 평가손실에서 끝나지 않고 반대매매·강제청산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인에게는 단순한 주가 하락보다 더 큰 재무위험이 될 수 있음

[12] SK하이닉스 ADR 상장은 정보격차의 한 사례임

- SK하이닉스의 미국 ADR(미국예탁증서, American Depositary Receipt) 상장은 비공개 서류 제출과 시장보도, 공식발표, 글로벌 기관 대상 북빌딩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됐음
- 글로벌 기관은 미국 상장 과정과 투자수요, 가격형성 분위기를 전문적으로 추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국내 개인투자자는 그렇게 정보를 분석하기는 어려움
- 이는 불법 정보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속도와 능력에서 기관과 개인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줌

[13] 중국 창신메모리의 급성장도 한국 반도체주에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중국 DRAM 기업 창신메모리(CXMT, ChangXin Memory Technologies)는 2026년 상하이 STAR Market(나스닥과 비슷한 성격의 중국 첨단기술주 시장)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생산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첨단 HBM에서는 아직 한국기업과 기술격차가 있지만 범용·서버용 DRAM 생산이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의 메모리 공급 부족과 높은 이익률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기술 추격과 공급확대도 장기적인 투자위험으로 살펴야 함

[14]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비중 확대 이후 급락장에서 막대한 평가액 감소를 겪었음

- 국민연금은 2026년 1월 국내주식 리밸런싱(주가 변동으로 달라진 자산 비중을 원래 목표 수준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유예했고, 5월 28일에는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상향하여 급등장에서 국내주식 비중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음
- 이후 7월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국민연금의 5% 이상 대량보유 국내주식 평가액은 한 달 만에 약 118조원 감소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약 83조원의 평가액 감소가 발생했음
- 이는 실제 매도로 확정된 손실과는 구별해야 하지만, 주가 급등기에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목표 비중까지 높인 결정이 이후의 시장급락에 국민의 노후자산을 더 크게 노출시킨 것은 아닌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15]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개인손실과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증폭장치였음

-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됐으며, 상품구조상 상승할 때 추가 매수하고 하락할 때 추가 매도하는 거래가 발생함
- 글로벌 반도체주 전체가 크게 흔들렸으므로 레버리지 상품을 폭락의 단일 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급등락 국면에서 개인투자자의 손실과 기초주식의 변동성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음

- 출시(5/27) 후 약 7주 만에 정부가 신규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7/16), 약 두 달 만에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7/31)했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시장대표주에 2배 레버리지를 허용한 초기 정책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충격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16] 김용범 정책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

-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내 증시 활성화와 투자상품 다양화 차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으며, 이후 금융당국의 제도개편을 통해 실제 상품이 빠르게 도입됐음
-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같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종목에 ± 2 배 레버리지 상품이 허용되면서 정책 결정이 단순한 금융상품 하나의 추가를 넘어 개인투자자의 자금 흐름과 시장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가 되었음
- 상품 출시 직후 개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이후 투자자 보호 규제가 다시 강화된 과정을 고려하면, 누가 어떤 판단과 논리로 이 정책을 추진했는지 그 정책 형성과정과 위험검토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17] 지방선거 직전의 증시정책은 정치적 증시 부양 의혹을 낳기에 충분했음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6·3 지방선거 일주일 전인 5월 27일 출시됐고,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은 그 다음 날인 5월 28일 결정됐음
-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증시부양책을 시행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정책 시점과 정치 일정의 연관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감시하는 것은 필요함
- 개인투자자는 정치적 목적 여부를 스스로 입증하려 하기보다 정치 일정과 정부 정책이 시장의 수급과 기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의 투자위험으로 인식해야 함

[18] 정부의 ‘호남 반도체’ 대규모 투자정책도 새로운 기업가치 리스크로 등장했음

-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수백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발표 당일 두

회사의 주가는 하락하고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나타났음

- 서남권 자체의 입지 적정성과 별개로, 이미 용인·평택·청주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 추가적인 막대한 설비투자가 요구될 경우 대규모 CAPEX(Capital Expenditure, 설비투자) 부담, 공급과잉, 인력·인프라 분산, 투자수익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 반도체 공장의 입지와 투자규모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보다는 수익성·공급망·전력·용수·인재·기존 클러스터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정치적·지역정책적 목표가 기업의 최적 자본 배분을 지나치게 제약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와 한국 증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

[핵심 정리]

- 2026년 한국 증시의 폭등에는 AI·HBM이라는 실제 산업 펀더멘털이 있었지만, 반도체 집중·외국인 자금·환율·대외경제 환경·국민연금·정책 기대·레버리지가 결합하면서 상승과 하락이 모두 증폭됐음. 사이드카 47회는 한국시장의 변동성이 과거와 현저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며, 신용과 레버리지가 증가한 개인투자자에게 이러한 변동성은 더 큰 위험으로 작용함. 특히 개인은 정보·분석능력·위험관리에 서 기관과 외국인보다 불리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

■ I — Interpret |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보는가

✓ 핵심 질문:

“돈과 정보와 시장이 인간의 욕망과 불안을 자극하는 시대에 기독교인은 투자와 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1] 돈은 필요한 도구이지만 인간의 주인이 될 수 있음

- 성경은 재산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인간에게 노동하고 생산하며 맡겨진 자원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함
-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셨음

(마 6:24)

- 돈이 우리의 안전·정체성·미래를 보장하는 존재가 되는 순간 재산은 청지기의 도구가 아니라 우상이 될 수 있음

[2] FOMO의 뿌리에는 탐욕과 비교, 불안이 있음

- FOMO(Fear of Missing Out)는 “다른 사람은 돈을 버는데 나만 뒤처진다”는 두려움으로, 급등장에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심리임
- 잠언은 조급하게 부자가 되려는 태도를 경계하고 부지런한 계획과 꾸준함을 지혜로 제시함(잠 21:5; 28:20)
-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이 얻은 수익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형편과 책임을 기준으로 재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함

[3] 투자와 투기는 동일하지 않음

- 주식투자는 기업의 생산·고용·기술개발에 자본을 공급하는 정당한 경제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주식투자를 도박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반면 기업가치보다 단기적인 가격변동만을 기대하고 생활자금·부채·과도한 레버리지를 동원한다면 투기는 점점 도박에 가까워질 수 있음
-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상품 이름보다 목적·기간·위험관리·레버리지·손실감당 능력과 투자자의 마음가짐에서 찾아야 함

[4] 정보 비대칭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보여줌

- 개인은 세계의 모든 정보와 미래의 사건을 알 수 없으며 기관보다 먼저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음
- 야고보서가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처럼(약 4:14), 기독교인은 자신의 전망과 판단능력을 절대화해서는 안 됨
- 장기투자자 분산은 미래예측을 포기하는 전략이 아니라 자신이 미래를 완벽히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위험관리가 될 수 있음

[5] 환율은 자산의 숫자와 실제 가치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줌

- 코스피가 크게 상승해도 원화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면 해외상품·에너지·여행·유학 등에 필요한 구매력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음
-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재산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했지만 재물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음
- 기독교인은 계좌의 숫자뿐 아니라 재산이 가족의 필요와 자신의 소명, 이웃에 대한 책임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함

[6] 노동과 생산이 부의 정상적인 토대임

- 성경은 인간에게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주었으며 정직한 노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권면함(창 2:15; 엡 4:28)
- AI 반도체산업의 가치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생산성·고용과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임
- 사회가 노동과 생산보다 자산가격 상승을 더 중요한 부의 원천으로 생각하면 경제와 인간의 삶이 왜곡될 위험이 있음

[7] 국민연금과 국가에는 더 무거운 공적 청지기 책임이 있음

-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고전 4:2)이라는 원리는 타인의 재산과 공공의 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음
- 국민연금은 정부의 돈이 아니라 국민이 노후를 위해 맡긴 자산이므로 정치적 이해보다 가입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우선해야 함
- 국가는 국민연금을 단기적 경제정책이나 시장 부양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의혹조차 최소화하도록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8]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음

-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이 먼저 비용을 계산한다고 말씀하셨음(마 6:34; 눅 14:28)
- 비상자금·저축·보험·노후준비·분산투자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맡겨진 삶을 책임 있게 준비하는 행동이 될 수 있음
- 기독교인은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무책임도 피하면서 계획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함

[핵심 정리]

- 성경은 돈과 투자를 부정하지 않지만 탐욕과 공포가 재산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경고함. 기독교인은 자신의 정보와 미래예측 능력이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노동·절제·분산·책임·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해야 함. 높은 변동성일수록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맡겨진 재산을 보존하는 청지기적 지혜가 중요함

■ E — Evaluate | 무엇이 왜곡되었는가

✓ 핵심 질문:

“이번 증시 폭등과 폭락을 통해 드러난 시장과 정책의 문제는 무엇이며, 정부·국민연금·금융회사·개인은 각각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1] 정부가 주가지수를 정치적 성과로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음

-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코스피 5,000’처럼 특정 지수 수준을 정부의 성과 목표로 제시한 것은 부적절했음
- 정부가 주가 상승을 자신의 정책 성과로 강조하면 투자자는 정부가 시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쉬우며, 이는 과도한 위험추구를 부추길 수 있음
- 정부의 역할은 주가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임

[2] 주가 상승과 기록적인 변동성을 함께 평가해야 함

- 2026년 코스피의 기록적인 상승은 반도체 호황을 반영하지만 사이드카가 47회나 발동됐다는 사실은 시장의 안정성이 동시에 크게 약화됐음을 보여줌
- 고수익과 고변동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장에서는 개인이 상승률만 보고 위험을 과소평가하기 쉬우며, 신용·레버리지 투자자는 그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음

- 따라서 주가지수 상승을 시장의 성공과 동일시하지 말고 수익률과 변동성·집중도·부채를 함께 평가해야 함

[3] 주가 상승만 강조하고 원화가치와 대외경제 위험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됨

-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은 한국 자산가격과 원화의 실질가치가 서로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줌
- 미국의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압박과 무역법 301조 조치 등 한미 통상 불확실성도 한국 대표기업의 실적과 외국인 자금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정부와 투자자는 주가·환율·물가·외국인 자금·통상환경을 하나의 경제 흐름 안에서 평가해야 함

[4]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는 엄정한 검증이 필요함

-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은 단기적인 증시 상황보다 국민의 노후자산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주가 급등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목표비중까지 상향한 것은 기존의 위험관리 원칙을 변경한 결정인 만큼, 그 근거와 절차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이후 증시와 주요 보유종목의 급락으로 대규모 평가액 감소가 나타난 것은 이러한 결정이 위험노출을 지나치게 높인 것은 아닌지 다시 묻게 함
- 국민연금은 증시부양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장기투자기관인 만큼, 시장안정보다 수익성·안정성·분산투자라는 기금운용 원칙이 우선되었는지 엄정하게 평가해야 함

[5]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 도입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정책이었음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초대형 종목이므로, ± 2 배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는 일반 ETF보다 엄격한 시장충격과 투자자 위험 검증이 필요했음
- 실제 개인 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급락장에서 손실이 확대됐으며, 리밸런싱 거래가 기초주식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나타났음
- 출시 후 5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66일 동안 36개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수

료는 893억5천만원에 달한 반면, 개인투자자 손실은 증권사 분석 기준 약 10조 원으로 추산됐음. 개인은 손실을 입어도 금융회사는 거래가 많을수록 수익을 얻는 이해관계의 비대칭이 드러났음

-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투자가 이미 급증하던 상황에서 이러한 고위험 상품을 빠르게 도입하고 이후 다시 규제를 강화한 것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묻게 함

[6] 고위험 금융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책임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설명책임이 있음

- 정책책임자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손실이 나타났을 때에도 당시 어떤 효과를 기대했고 어떤 위험을 검토했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음
-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처럼 개인투자자의 손실 가능성과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면, 상품 도입 전 충분한 스트레스테스트와 투자자 보호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출시 속도가 적절했는지, 사후 규제강화가 왜 필요해졌는지를 평가해야 함
- 여러 기관이 함께 결정했거나 정식 행정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형사책임과 별개로 정책 판단의 적정성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설명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함

[7] 개인투자자가 기관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한다고 가정하는 시장은 공정하지 않음

- 개인과 기관은 투자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정보·분석인력·거래속도·기업접근성·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실제 경쟁 조건은 크게 다름
- SK하이닉스 ADR, CXMT의 상장·증설, 글로벌 AI 투자변화처럼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일반 개인은 전문기관처럼 빠르고 깊게 분석할 수 없음
- 개인은 여기에 신용융자·레버리지까지 더할 경우 기관보다 정보에서는 불리하면서도 더 큰 손실위험을 부담하는 구조에 놓일 수 있음
- 금융당국과 거래소·기업·금융회사는 개인투자자가 뒤늦게 위험을 떠안는 구조를 줄이기 위해 정보공개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함

[8] 그렇다고 개인투자자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정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가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투자 손실 전체를 정부나 금융회사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음
- 고점 추격매수·빚투·몰빵·레버리지 확대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선택했다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도 있음
- 개인투자자는 자신이 정보에서 열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관과 단기매매로 경쟁하기보다 분산·장기투자·낮은 레버리지로 위험을 관리해야 함

[9] 선거를 앞둔 증시부양 논란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님

- 선거 직전에 국민연금 비중 조정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등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집중된 것은 사실임
-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증시부양책이 시행된 전례가 있으므로 정치 일정과 시장 정책의 관계를 감시하는 것은 필요함
- 투자자는 “정부가 선거 전까지 주가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투자근거로 삼지 말고 정치와 정책의 변화 가능성 자체를 시장위험으로 고려해야 함

[핵심 정리]

- 2026년 증시의 폭등과 폭락은 개인투자자의 탐욕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반도체 집중·환율·대외경제 환경·정부정책·국민연금·레버리지와 정보격차가 복합적으로 시장위험을 키웠음. 동시에 개인 역시 신용·빚투·집중투자·FOMO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제도의 책임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개인의 책임을 함께 회복하는 것이 필요함

■ W — Way Forward |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 핵심 질문:

“한국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독교인과 교회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청

지기의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정부는 ‘코스피 몇 천’보다 시장의 신뢰를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 정부는 특정 주가지수 달성을 경제정책의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기업지배구조·주주보호·회계투명성·불공정거래 근절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함
- 주가·환율·해외투자·외국인 자금과 통상환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금융·외환·대외경제 정책을 함께 살펴야 함
- 특히 선거를 앞두고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결정근거와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치적 증시부양이라는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국민연금은 증시부양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함

- 국내주식 비중과 리밸런싱은 주가지수나 정부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장기 기대수익률·위험·연금부채와 세대 간 형평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함
- 목표비중을 크게 변경하거나 리밸런싱 원칙을 유예할 경우 그 이유와 위험평가, 장기적인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사후 검증해야 함
- 국민연금의 성공 여부는 오늘 코스피를 얼마나 지탱했는지가 아니라 수십 년 뒤에도 국민에게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로 평가해야 함

[3] 고위험 금융상품은 ‘먼저 출시하고 나중에 규제하는 방식’을 반복해서는 안 됨

- 단일종목 레버리지처럼 시장변동성과 투자자 손실을 확대할 수 있는 상품은 출시 전에 급등·급락을 가정한 충분한 시장충격 분석이 필요함
- 개인투자자의 선택권은 존중하되 예탁금·위험교육·적합성 심사·광고규제를 상품 위험수준에 맞게 운영해야 함
- 정책 시행 뒤 문제가 커진 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보다 위험을 충분히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음

[4] 개인과 기관 사이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시장을 만들어야 함

- 해외상장·대규모 자금조달·경쟁기업 증설 등 국내 주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개인투자자에게도 신속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 거래소·금융당국·증권사는 해외산업 변화와 파생상품·프로그램매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함
- 모든 투자자의 분석능력을 같게 만들 수는 없지만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만큼은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함

[5] 개인투자자는 기관보다 빨라지려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투자해야 함

- 개인은 전문인력·글로벌 정보망·알고리즘을 갖춘 기관과 단기적인 정보와 매매 속도로 경쟁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의 매매를 그대로 따라 하는 투자도 경계해야 함
- 개인의 가장 큰 장점은 매일 거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므로 좋은 자산을 적절한 가격에 분산하여 장기간 보유하고 일정한 원칙에 따라 리밸런싱하는 전략을 활용해야 함
- 정보에서 불리할수록 거래횟수와 레버리지를 줄이고 투자기간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임

[6] 기독교인은 투자를 넘어 ‘청지기적 자산관리 원칙’을 세워야 함

- 생활비·비상자금과 투자자금을 분리하고, 가족의 기본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빚투와 과도한 레버리지를 피해야 함
- 한 종목·한 산업·한 국가·한 통화에 재산을 집중하지 않고 국내외 주식·채권·현금성 자산 등을 자신의 형편에 맞게 분산해야 함
- 투자 전에 ‘왜 사는가’를 확인하고 정부가 올려줄 것이라는 기대, 다른 사람의 수익, FOMO가 주된 이유라면 투자결정을 다시 점검해야 함
- 자산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뿐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고 교회와 이웃을 돕고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을 재정계획에 포함해야 함

〈표1〉 청지기적 자산관리 원칙

- | |
|--|
| <p>① 생활을 지키는 돈과 투자하는 돈을 구분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비·비상자금·세금·주택자금·자녀교육비처럼 반드시 필요한 돈은 시장의 급등락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p>② 부채를 이용한 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제한해야 함</p> |
|--|

- 투자 실패가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채권자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빚을 이용한 투자에는 더욱 높은 책임이 요구됨
- ③ 한 종목·한 산업·한 국가에 전 재산을 집중하지 않아야 함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어도 기업·산업·국가·통화 위험은 존재하므로 국내외 주식·채권·현금성 자산 등을 적절히 분산해야 함
- ④ 원화자산과 외화자산의 균형도 고려해야 함
 - 원화 약세가 걱정된다고 모든 돈을 달러자산으로 바꾸는 것도 위험하며, 반대로 모든 자산을 원화에만 두는 것도 집중위험이 될 수 있음
 - 장기적인 자산배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여러 통화와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⑤ 레버리지는 자산관리의 기본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정상적인 장기수익률로도 재정계획이 성립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2배·3배 수익이 있어야만 계획이 성립한다면 투자목표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함
- ⑥ 투자 전에 ‘왜 사는가’를 기록해야 함
 - 기업의 가치와 실적, 투자기간, 위험요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정부가 올려줄 것이다”, “외국인이 샀다”, “이번에는 다르다”가 이유라면 다시 생각해야 함
- ⑦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하되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맞히려 하지 않아야 함
 - 일정한 목표비중을 정하고 가격이 크게 움직였을 때 원래의 비중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사용하면 상승장에서 탐욕 때문에 더 사고 하락장에서 공포 때문에 모두 파는 행동을 줄일 수 있음
- ⑧ 재산의 최종 목적에 나눔과 하나님 나라를 포함해야 함
 - 기독교인의 재정목표는 죽을 때 가장 많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고 필요한 사람을 돕고 교회와 사회를 섬기며 자신에게 맡겨진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어야 함

[7] 교회는 ‘투자로 부자가 되는 법’보다 돈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야 함

- 교회는 주식과 자산투자를 무조건 탐욕이나 도박으로 규정해서도 안 되지만 투자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해서도 안 됨
-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는 자신의 신앙적 권위나 공동체의 신뢰를 이용해 특정 주식·코인·부동산·고위험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일을 특히 경계해야 함
- 투자손실·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에게는 종목추천보다 가계안정과 위험축소를 돕고, 직업·노동·소비·저축·보험·투자·연금·기부를 함께 다루는 청지기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청년들에게 한 번의 레버리지 투자로 계층을 뛰어넘으려는 조급함보다 전문성과 노동을 통해 꾸준히 가치를 만들고 긴 시간 동안 자산을 축적하는 삶을 가르쳐야 함

[핵심 정리]

- 정부는 주가지수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국민연금은 정치와 시장부양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함. 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을 충분히 검증하고 개인과 기관 사이의 정보격차를 줄여야 함. 개인투자자는 기관과 단기 정보경쟁을 하기보다 분산·장기투자·낮은 레버리지로 자신의 구조적 한계를 관리해야 함. 기독교인은 돈을 불리는 기술을 넘어 노동·절제·책임·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산을 충성되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함

■ Action Checklist

- ☐ 나는 주가 상승만 보지 않고 환율·시장변동성·대외경제 상황까지 함께 살펴 자산의 실제 위험을 판단한다.
- ☐ 나는 개인투자자가 기관·외국인보다 정보와 분석능력에서 불리함을 인정하고, 단기매매보다 장기·분산투자를 원칙으로 삼는다.
- ☐ 나는 정부 정책·선거 일정·국민연금·외국인의 매매를 투자 보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와 정책의 변화 가능성까지 위험요인으로 고려한다.
- ☐ 나는 빚투·과도한 레버리지·특정 종목 집중을 피하고, 투자 실패가 가족의 생활과 미래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산을 운용한다.
- ☐ 나는 투자수익률만을 재정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노동·절제·책임·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산을 충성되게 관리한다.

■ Final Message

- ☐ AI와 HBM이 이끄는 반도체 호황은 실제이지만, 좋은 산업과 좋은 기업이 어떤 가격에서도 좋은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님

- 사이드카 47회라는 기록은 높은 주가지수가 반드시 안정적이고 건강한 시장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줌
- 주가·환율·외국인 자금·국민연금·대외경제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코스피 숫자 하나만으로 한국경제와 투자환경을 판단해서는 안 됨
- 개인투자자는 기관보다 더 빨리 정보를 얻으려 하기보다 자신의 정보 한계를 인정하고 장기·분산·저레버리지 투자로 대응해야 함
- 기독교인의 마지막 질문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산을 얼마나 지혜롭고 충성되게 사용했는가?”가 되어야 함

■ 기도 제목

1. 정부와 국민연금이 공적 청지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 정부와 금융당국이 정치적 이해와 단기적인 주가지수에 매이지 않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세우게 하시며,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산을 장기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충성되게 관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2. 투자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가정이 회복되도록

- 투자손실과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조급함에 사로잡혀 더 큰 위험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형편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가정경제와 삶의 책임을 다시 세울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3.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돈의 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탐욕과 FOMO, 비교와 불안을 분별하고, 노동·절제·책임·나눔의 삶을 통해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산을 선하게 사용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 본 리포트는 2026년 8월 1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참고: 최근 SIEW REPORT 목록

- [2026년 제6호] “폭등과 폭락 사이, 한국 증시는 무엇에 흔들리는가? - AI 반도체·환율·정부정책·레버리지와 기독교인의 자산관리”
- [2026년 제5호] “검찰청 폐지 이후, 국민의 권리는 누가 지키는가?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국민 보호의 공백”
- [2026년 제4호] “인천시장 선거 송도1동·송도2동의 3,030표와 1,440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 통계적 의심과 민주주의 신뢰의 과제”
- [2026년 제3호] “선관위는 누가 감시하는가? - 선거의 공정성, 민주주의의 신뢰, 그리고 교회의 책임”
- [2026년 제2호] “한국 상황에서 ‘유신진화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2026년 제1호] “6.3 지방선거,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 SIEW REPORT는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홈페이지(www.siew.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